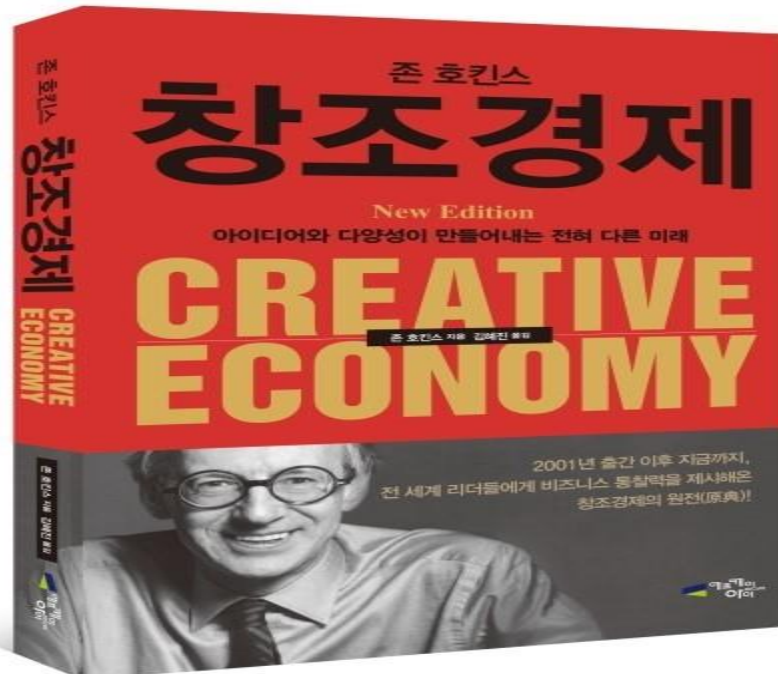


“창조경제”를 위한 IT전략*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창조 경제란?

- ▶ 창조경제란 존 호킨스가 쓴 책에 나온 용어로 새로운 아이디어,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, 유통업,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



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?

- ▶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
- ▶ 경제성장률 지향에서 고용률 지향으로
- ▶ 양적 성장 추구에서 질적 성장 추구로
- ▶ <http://www.dmook.co.kr/gallery/view.asp?seq=201021>

창조경제론과 IT전략 정책 관련

- ▶ IT에 사용되는 SW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음
- ▶ 공공차원의 제도적 지원
- ▶ 응용 소프트웨어 육성/활성화
- ▶ 산업 경쟁력 확보
- ▶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
- ▶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
- ▶ 미래창조 과학부 신설

왜 IT산업을 강조하는가?

- ▶ IT산업의 경우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.
- ▶ 스마트폰 앱 같은 새로운 콘텐츠나 컴퓨터 관련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.
- ▶ 우리나라는 IT관련 보급율이 세계 1위에 자리잡고 있다.

IT전략*정책의 변화 배경

- ▶ 인터넷의 확산
- ▶ SW의 전략적 중요성
- ▶ 모바일 IT의 증가
- ▶ IT 글로벌화의 진전
- ▶ 소통과 확산의 매개체로서 IT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

벤처기업의 중요성

- ▶ 기술의 혁신주기가 짧아짐
- ▶ M&A를 통한 기술력의 확보
- ▶ 클라우드 소싱 전략이 전 산업에 걸쳐 소비자주도형 혁신 개방형 혁신의 한 방법으로 대두

IT관련 국가 정보화의 추진

국가사회를 정보화 하고자 하는 정책은 콘텐츠/지식의 고도화와 정보사회 규율의 관점

정보화의 추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주도적인 참여를 전제로 진행하되 구조조정과 혁신의 중요성 강조

ICT산업의 중요성 부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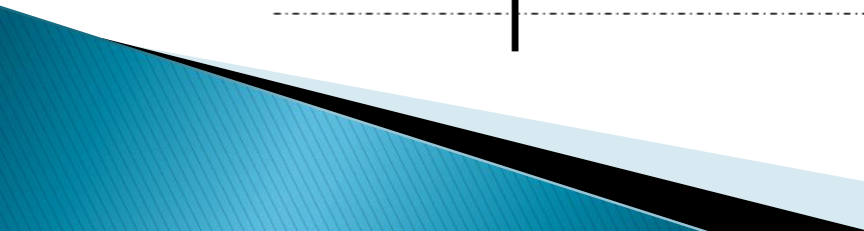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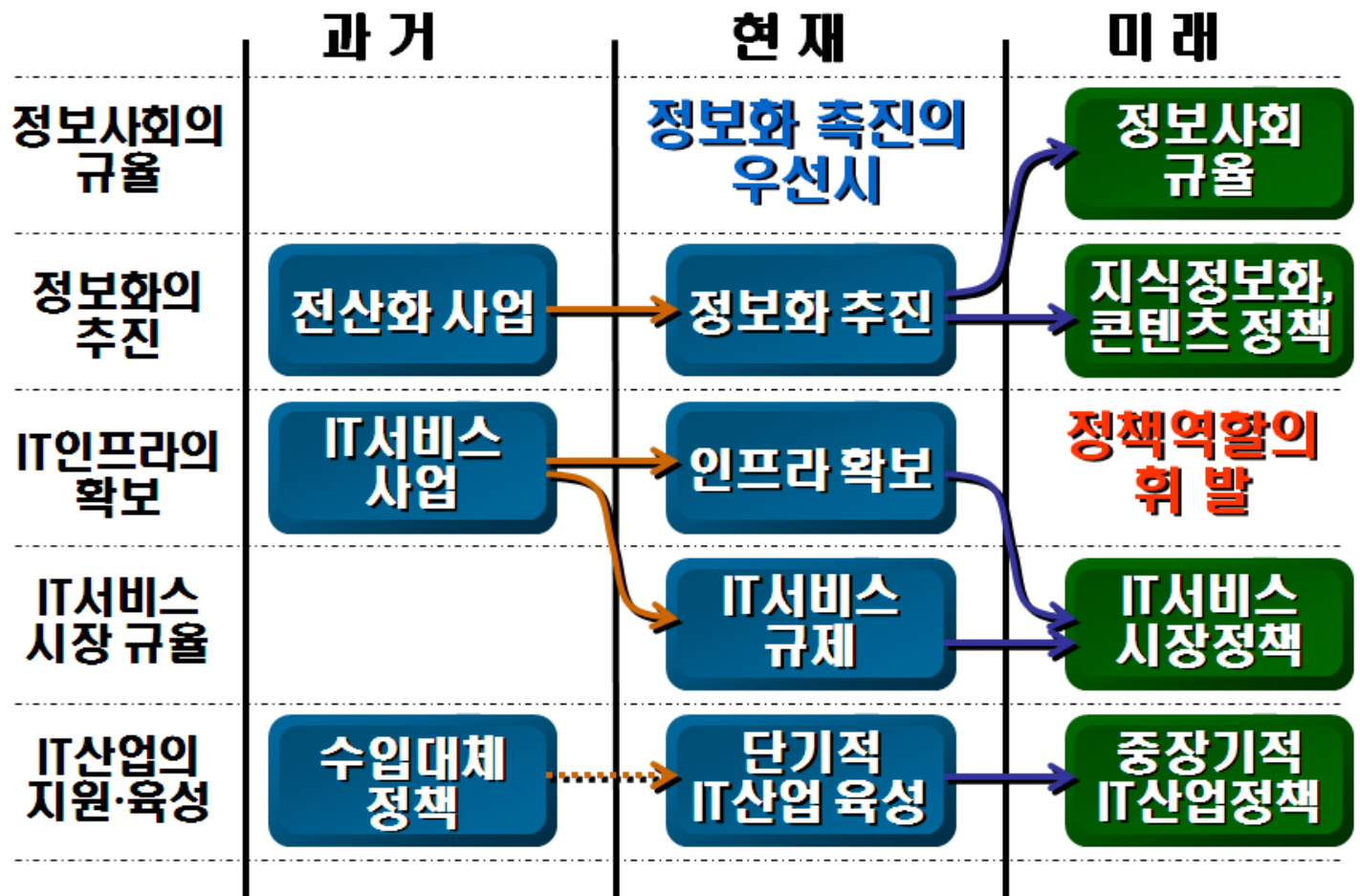
- ▶ ICT란? Information & Communication Technology
- ▶ 1.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한 기존에 없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점 (물론 다른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 이지만)
- ▶ 2.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 (설비 등)
- ▶ 3. 글로벌 서비스로 진출하기에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(해외 지사, 공장 설립 등 고려)

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

- ▶ 국가는 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수요 및 장기적 진화를 조망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정책을 추진
- ▶ 보안의 중요성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.

IT전략 정책의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변화

- ▶ IT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화의 성숙 등 새로운 변환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.
- ▶ IT를 위하여 HD만 중요한게 아닌 SW까지 생각하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.



10대 정책 원칙

- ▶ 메가 트렌드에 전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책 시각의 중장기화
- ▶ 중장기적인 정책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구도의 제도화 및 투명성 강화
- ▶ 국가전략에서 민간과 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이에 대한 적극적 반영
- ▶ 민간 자율성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과 민간의 창의성 극대화

- ▶ 공공부문에 의한 정책적 미세조율과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 지양
- ▶ 다양한 IT전략/정책 요소 사이의 상호연계성 강화
- ▶ 인적자원의 창의성 중시
- ▶ 대외개방적 전략의 추진
- ▶ 국가지식자산의 축적과 생산자서비스의 활성화
- ▶ 구조적 유연성의 체계적 도입으로 사회자본 축적

결론

- ▶ 현재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과 실패의 변곡점 위에 있다. 빠른 변화 속 정체하면 도태될 수 있다. 수년째 2만 불 중진국 함정에 갇혀 있고, 양극화로 국민의 삶 악화되고 있다."
- ▶ "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취약하다. 공정한 경쟁 위한 시장 확립과 마케팅, 인력 배치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다 업그레이드해야 한다."
- ▶ 미래산업부가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연구개발과 ICT의 육성을 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.